

칠레, 아르헨과 '혈투' 끝 코파아메리카 우승

승부차기 접전 속 4:2 로 꺾고 정상 등극

칠레가 남미축구연맹(CONMEBOL) 출범 100주년을 맞아 특별 개최된 2016 코파아메리카에서 정상에 올랐다.

칠레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 포함 12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2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99년 만에 이 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칠레는 2년 연속 아르헨티나를 승부차기로 따돌리며 남미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23년 만의 우승컵을 노렸던 아르헨티나는 또 다시 칠레의 벽에 막혔다. 리오넬 메시(FOR셀로나)의 첫 메이저대회 우승도 좌절됐다. 메시는 승부차기 첫 번째 킥으로 나서 실축을 범해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와 곤살로 이과인(나폴리)은 이번 대회 들어 주가를 대폭 끌어 올린 에두아르도 바르가스(호펜하임)와 알렉시스 산체스(아스날)로 맞불을 놓았다.

칠레 대표 미드필더인 아르투로 비달(바이에른 뮌헨)이 공수 조율을 담당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20초 만에 에베르

바네가(세비야)의 중거리 슈트로 칠레의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17분에는 메시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노렸다.

전반 21분 아르헨티나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이과인이 칠레 최종 수비수 공을 가로채 골키퍼와 맞섰다.

하지만 이과인의 발을 떠난 공은 골대를 살짝 옆으로 비껴가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칠레는 전반 28분 큰 위기를 맞이했다. 미드필더 마르셀로 디아스(셀타)가 메시의 돌파를 막던 중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적 우위를 금세 포기했다. 전반 43분 마르코스 로호(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비달을 겨냥한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유리한 흐름 속에서도 답답한 행보를 지속하던 아르헨티나는 후반 25분 이과인 대신 세르히오 아게로(맨체스터 시티)를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아게로는 후반 39분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트를 날렸지만 공은 하늘로 향했다.

두 팀은 연장 전반 한 차례씩 득점과



칠레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 포함 12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2 승리를 거뒀다.

다들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전반 9분 바르가스와 1분 뒤 아게로의 헤딩슛이 모두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승부차기로 넘어간 경기에서 웃은 팀은

칠레였다. 칠레는 키커들의 활약과 클라우디오 브라보(FOR셀로나)의 선방으로 접전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했다.

/김민근기자

멕시코 태권도 대표팀, 우석대 WGTA에서 전지훈련

멕시코 베라크루스 태권도협회 대표팀이 우석대학교 우석글로벌 태권도 아카데미(이하 WGTA)에서 오는 29일까지 전지훈련을 시행한다.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태권도팀은 '2016 경주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아세프 자모라 태권도협회장 포함 20여명의 선수단이 WGTA를 방문해 본격적인 탐금잠에 나섰다.

최상진 우석대 태권도학과장은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태권도 대표팀이 WGTA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멕시코와 함께 훈련하며 해외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국악기공대회 성료

지난 25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국악기공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개막식에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권기선 대한국악기공협회장, 김광수 국회의원,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 17개 시·도의 대표선수단 1,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단체전 종합부문 준우승과 단체전 어르신 부문 '이중대우' 팀의 동상 수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통합이후 생활체육인들과의 첫 화합의 장으로 우리 체육인들의 하나 된 힘, 국악기공 동호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회가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유로 2016 벨기에에 헝가리 4:0 대파

프랑스 · 독일 과 8강 진출

우승후보 벨기에가 헝가리의 돌풍을 잠재우고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8강에 안착했다.

벨기에에는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툴루즈의 스타디움 드 툴루즈에서 열린 헝가리와의 대회 16강에서 토비 알더바이렐트(토트넘)의 결승골을 앞세워 4:0으로 승리했다.

벨기에에는 지난 2000년 대회 이후 16년 만에 유로 본선에 진출했음에도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황금세대로 불리는 에담 아자르(첼시), 케빈 데 브루잉(맨체스터 시티), 악셀 비첵(제니트), 마루앙 펠리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을 앞세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에 0:2로 패해 의심어린 시선이 따랐으나, 아일랜드와 스웨덴을 연달아 격파하고 E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이날 역시 우승 후보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승리를 챙겼다.

주장 아자르가 1골1도움을 기록하며 승

리를 이끌었다. 세 번째 어시스트를 추가해 대회 도움 단독 1위에 올라섰다.

벨기에에는 다음달 1일 가레스 베일(레알 마드리드)이 버티고 있는 웨일스와 8강에서 맞붙는다.

44년 만에 유로 본선에 진출했던 헝가리의 도전은 16강에서 막을 내렸다. 앞서 조별리그에서 1승2무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F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지만 벨기에의 벽은 높았다.

리옹에서는 개최국 프랑스가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멀티골에 힘입어 아일랜드를 2:1로 눌렀다.

지난 1984년, 2000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프랑스는 통산 3회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7월3일 잉글랜드-아일랜드의 16강 경기 승자와 준결승 티켓을 다툰다.

'전차군단' 독일은 빌의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슬로바키아를 3: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다.

통산 3회 우승(1972 · 1980 · 1996년)을 자랑하는 독일은 순항을 이어갔다. 2008년 대회 준우승 이후로는 3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 강팀의 면모를 이어갔다.



벨기에에는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툴루즈의 스타디움 드 툴루즈에서 열린 헝가리와의 대회 16강에서 토비 알더바이렐트(토트넘)의 결승골을 앞세워 4:0으로 승리했다.

승전고를 울린 독일은 오는 7월2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16강 경기 승자와 8강에

서 만난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직장인들 위한 '칼퇴 티켓' 발행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29일(수) 19시 전남과 홈경기를 시작으로 주중 야간경기에 직장인들을 위한 '칼퇴-티켓'을 발행한다.

'칼퇴-티켓'은 직장인들의 화식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화식문화는 음주만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전북은 축구경기를 즐기며 전북민의 축구 화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획했다.

올 시즌 남은 주중 야간 경기(3경기)에 한정하여 판매되며 기존 E/N석 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 인상된 13,000원으로 축구경기 관람과 맥주를 무제한 마실 수 있는 티켓이다.

'칼퇴-티켓'은 6월 29일 전남전과 7월 13일 FA컵 8강 부천 FC전, 8월 10일 수원FC전 모두 수요일 주중 경기인 이 세 경기에 한해서 진행되며 경기당 300명 한정으로 판매된다.

이용 방법은 티켓을 구매하고 동측 맥주 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 인증 팔찌를 받으면 마운렛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전북의 주장인 권순태 선수는 "많은 업무에 지친 직장인 분들이 전주상에 화식하며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게 되셨으면 좋겠다. 전북민들의 화식이 업무의 연장이 아닌, 즐거운 화식문화가 되길 바란다" 전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